

인도네시아 스포츠 마케팅을 활용한 식품 홍보

자카르타 지사

스포츠 마케팅을 활용한 식품 홍보

- 인도네시아는 스포츠 이벤트를 활용한 마케팅이 활발한 국가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대표 식품회사 인도푸드(Indofood)는 이번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공식 스폰서이면서 스포츠 이벤트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는 대표적인 업체이다. 프로축구 팀을 활용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현재 반둥 빠르십, 발리 유나이티드 등 총 7개 프로축구팀의 메인 스폰서를 하고 있으며, 현지 프로팀 팬 층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 식품 회사들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건강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어 스포츠를 활용한 마케팅 방안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다.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개최

- 2018년 아시안게임은 역사상 처음으로 두 도시에서 공동 개최되어,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주관으로 2018년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와 팔렘방에서 열릴 예정이다.
-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45개국 약 1만 1,3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하고 참관객은 30만 명이 예상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로 스포츠 마케팅을 활용할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안게임 공식 스폰서 인도푸드

aT, 아시안게임 연계 한국농식품 홍보

- aT는 아시안게임 개·폐막식이 개최되는 글로라 붕까르노 주경기장 인근 쇼핑몰 정문에 한국농식품 홍보관 및 판매관을 운영하여 한국농식품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수출확대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 미래클 K-Food Zone, Red&Hot Zone, 할랄식품 Zone 등을 운영하고, 한국식품 수입업체 판매관을 통해 현지 소비자 대상 홍보·판매활동을 하게 된다.
- 인도네시아 소비자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 45개국 관계자 및 해외 참관객들에게 동시에 홍보가 가능한 만큼, 참여 기업들이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기회로 삼기를 기대한다.